

남녀생도 생활적응과정 연구: 입교후 1년간 추적연구*

김광은
공군사관학교

이 연구는 남녀 생도의 입교후 1년간의 생활적응 과정을 수량적 방법과 질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는 공군사관학교 1학년 남생도 182명과 여생도 19명이 참여하였다. 수량적인 면에서 생도생활 적응은 생도생활적응검사, 간이정신검사, 성적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질적인 면에서의 생활적응은 중대 단위의 소집단에 대한 총 18회의 집단면접을 통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학년 전 과정을 통해 생도생활적응은 1학기말이 가장 낮은 V형의 패턴을 보인다. 둘째, 여생도는 생활적응이나 정신건강면에서 남생도보다 생활적응상의 어려움이 더 많다. 셋째, 여생도는 남생도 보다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내무성적은 떨어진다. 넷째, 학업 및 내무 생활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생도는 학업 및 내무 성적도 낮게 나온다. 다섯째, 생도생활 적응은 외부에서 내부로, 개인에서 집단으로, 동화에서 조절로 변화해 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관학교의 물리적, 심리적 환경의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연구 목적

새로운 조직이나 집단에서의 생활은 누구에게나 적응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한다. 사관학교는 학교 조직과 군 조직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곳이어서 이곳에 입교하는 생도들은 고교 시절과 다른 학업 분위기나 인간관계의 경험 뿐 아니라 재사회화 과정이라 불리우는 초기 군대 생활의 적응 과제를 동시에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사관학교에 1997년 공군사관학교를 기점으로 하여 육사와 해사도 여학생에게 문호를 개방하게

되어 사관학교에 입교하는 여생도들은 종래의 남생도들이 경험적인 적응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사관학교의 4년간 생도생활은 나름대로 각 시기마다 적응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 기간 중 초기 1년의 과정은 생도로서의 정체감 획득을 위한 결정적 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도들의 입교후 1년간의 과정은 학교 조직의 특징인 개인의 '자율'이나 '수월성'보다는 군대 조직의 특징인 집단의 '균일성', '위계에 따른 질서' 등의 가치

* 본 논문은 1997년도 공군사관학교 국고연구로 수행된 것임

가 훨씬 두드러지는 행동 덕목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초기 1년간 사관학교 고유의 전통이나 행동 규범을 얼마나 기꺼이 받아들이고 행동화 하는가는 나머지 3년간의 생도생활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생도생활 적응과제에 덧붙여 사관학교에 여생도의 등장으로 다음과 같은 과제

으로는 남성성이 우세한 이곳 장면에 적응하느라 성역할 정체감 혼란 같은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생도생활 적응 기제의 습득면에서도 적응의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선배 장교나 생도가 많은 남생도에 비해 소수의 여성 장교와 선배 여생도가 전혀 없는 생도생활은 여생도들에게 더욱 어려움을 줄 수 있다.

표1. 생도생활 적응검사 시기 및 요인별 평균, 표준편차

| 요인 | 성별 | 3월 | | 7월 | | 12월 | |
|----------|-----|--------|-------|--------|-------|--------|-------|
| | | M | SD | M | SD | M | SD |
| 학업 | 남생도 | 89.62 | 13.17 | 78.78 | 18.38 | 87.20 | 17.79 |
| | 여생도 | 83.95 | 12.59 | 78.16 | 11.16 | 88.05 | 19.84 |
| | 계 | 89.01 | 13.19 | 78.72 | 17.72 | 86.87 | 17.99 |
| 내무 | 남생도 | 117.80 | 17.92 | 116.72 | 18.06 | 114.56 | 17.09 |
| | 여생도 | 113.63 | 19.16 | 109.05 | 13.47 | 112.05 | 18.95 |
| | 계 | 116.64 | 17.96 | 116.03 | 17.45 | 114.28 | 18.46 |
| 사회 | 남생도 | 64.94 | 10.49 | 63.63 | 11.15 | 63.32 | 11.10 |
| | 여생도 | 61.68 | 10.34 | 62.58 | 10.79 | 68.58 | 13.40 |
| | 계 | 64.59 | 10.49 | 63.51 | 11.09 | 63.68 | 11.45 |
| 개인 정서 | 남생도 | 78.08 | 11.72 | 76.65 | 14.47 | 78.20 | 14.93 |
| | 여생도 | 72.73 | 12.39 | 72.74 | 15.06 | 78.11 | 17.73 |
| | 계 | 77.51 | 11.87 | 76.55 | 14.52 | 78.14 | 15.11 |
| 애착 | 남생도 | 47.05 | 8.38 | 48.21 | 9.11 | 47.90 | 9.53 |
| | 여생도 | 46.10 | 10.07 | 46.21 | 8.66 | 47.26 | 9.52 |
| | 계 | 46.71 | 8.51 | 48.09 | 9.06 | 47.31 | 9.53 |
| 총적용 | 남생도 | 397.52 | 53.61 | 387.49 | 55.95 | 391.20 | 60.40 |
| | 여생도 | 377.42 | 55.80 | 367.63 | 45.12 | 394.05 | 69.14 |
| | 계 | 395.35 | 54.05 | 385.35 | 55.12 | 390.63 | 62.02 |

들이 새롭게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주로 남성들에 초점이 맞춰진 시설, 복장, 제도와 같은 물리적인 요소는 그 자체가 여생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면서도 심리적

아직까지 사관학교나 생도생활을 소재로 한 연구 자체가 많지 않지만 그나마 생도생활 적응 과정과 연결지워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개의 연구(DeFleur et al, 1985; Stiehm, 1981; Wamsley,

1972)는 주로 사회학적 관점에서 생도들의 군인으로서의 사회화 되어가는 과정을 다룬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기술적인 수준에서 생도화 되어 가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도이나 대부분 연구자의 관찰 및 경험에 의존한 것이어서 생도들의 적응 과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생도들의 생도생활 적응 과정을 좀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는 도구나 이를 사용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이들의 적응 상태를 시기나 성, 학년 별로 비교해 볼 수 있을 뿐더러 사관생도와 일반 집단과의 적응 상태 비교도 가능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사관생도의 생활적응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해 볼 수 있는 도구를 제작하고 이러한 도구에 근거해 생도들의 적응 과정을 입교후 1년간의 기간에 초점을 두어 시기별 변화 및 남녀 생도간에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아울러 적응의 한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정신건강 수준이나 학업 및 내무 생활에서의 성취 수준을 측정하여 계량적인 수준에서 생도들의 적응 과정을 살펴 볼 것이다. 이외에도 좀더 심층적인 측면에서 생도들의 적응 과제나 적응 기제 등을 탐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에 대한 관찰과 면접 등의 질적인 방법을 병행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시도는 초기 생도생활 적응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초 자료의 제공이라는 측면 뿐 아니라 한국 사관학교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남녀 생도 통합 교육의 측면에서 남생도 및 여생도들의 생활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나온 자료들은 단순히 남녀 생도들의 적응 상태를 기술하는 차원 뿐 아니라 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적응상의 어려움을 드러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생도들의 적응을 돕는 교육이나 상담 같은 예방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에도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방법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관학교 중 처음으로 여생도를 받아들인 공군사관학교 1학년 생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번의 조사와 1, 2학기동안 각 두 번씩 연구 대상에 대한 집단 면접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생도 19명은 전 조사 및 면접 과정에 한명도 빠짐없이 참석하였으나 남생도의 경우는 1차에는 182명, 2차에 177명, 3차에 165명이 참여하였다. 따라서 면접이나 시기별로 분석한 자료에서는 각 시기에 참석한 대상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였으나 동일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 검증에서는 세 차례 조사에 모두 응한 남생도 165명, 여생도 19명의 자료만 분석하였다.

방법

본 연구에서는 검사지 및 수량적인 변인의 분석을 통한 방법과 면접을 통한 질적 방법이 병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와 변인, 그리고 면접 방법은 다음과 같다.

측정도구 및 변인

생도생활적응검사 : 이 검사는 Baker와 Siryk(1984)이 만든 대학생활 적응 척도(Student Adjustment to College:SACQ)를 기본으로 하여 본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원 검사는 학업, 사회, 개인-정서, 애착 등의 요인을 통해 적응 상태를 파악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생도생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내무 생활의 영역을 추가로 첨가시켰다. 본 검사의 제작을 위해 사전 문항 분석 및 예비검사가 선행되었으며 75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 검사 결과 Chronbach $\alpha = .81$ 로

나타났다. 본 검사의 문항은 7점 척도의 리커트 형식이며 총 9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검사의 하위 요인인 학업, 내무, 사회, 개인-정서, 애착간의 상관관계는 .56에서 .73까지이다.

증상별 재검사 신뢰도는 .73에서 .83, 내적 합치도는 .67에서 .76까지 보고되고 있다.

성적 : 생도들의 성적평가는 크게 일반학 과목 및 군사학 과목에서 얻은 점수로 나타나는

표2. 생도생활적응검사 성 및 시기별 변량분석

| 요인 | 변량원 | 자유도 | 자승화 | 평균자승화 | F |
|-------|------|-----|---------|---------|--------|
| 학업 | 성 | 1 | 493.39 | 494.39 | 1.64 |
| | 시기 | 2 | 2762.66 | 1381.33 | 5.40** |
| | 성×시기 | 2 | 215.82 | 107.91 | 0.42 |
| 내무 | 성 | 1 | 1049.29 | 1049.29 | 2.16 |
| | 시기 | 2 | 288.39 | 144.69 | 0.60 |
| | 성×시기 | 2 | 297.66 | 148.99 | 0.62 |
| 사회 | 성 | 1 | 5.68 | 5.68 | 0.04 |
| | 시기 | 2 | 142.93 | 71.46 | 0.70 |
| | 성×시기 | 1 | 378.34 | 189.17 | 1.86 |
| 개인-정서 | 성 | 1 | 522.49 | 522.49 | 1.80 |
| | 시기 | 2 | 322.09 | 161.04 | 1.11 |
| | 성×시기 | 1 | 199.66 | 99.82 | 0.69 |
| 애착 | 성 | 1 | 211.55 | 211.55 | 1.84 |
| | 시기 | 2 | 28.37 | 14.18 | 0.21 |
| | 성×시기 | 1 | 41.64 | 20.82 | 0.31 |
| 총적용 | 성 | 1 | 1154.11 | 1154.11 | 2.46 |
| | 시기 | 2 | 4985.84 | 2492.92 | 0.98 |
| | 성×시기 | 1 | 2451.03 | 1225.52 | 0.48 |

**P<0.01

간이정신진단검사 : 이 검사는 김 광일과 김 재환 그리고 원 호택(1984)이 Derogatis(1977)의 Hopkins Symptom Checklist를 기초로 한국판으로 표준화 한 것이다. 이 검사에서는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 불안, 편집증, 신경증과 같은 9개의 증상과 현재 장애의 수준이나 심도를 나타내는 전체심도지수를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검사는 9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5점 평정 척도이며 9개의

학업성적과 생도생활의 적성 및 규정 준수 상태, 소양 등을 평가하는 내무성적으로 나뉘어진다. 종합성적은 학업성적의 비율을 68%, 내무성적을 32%로 하여 합산한 점수로 본 연구에서는 1, 2학기 성적을 학업, 내무, 종합 성적별로 분석하였다.

집단 면접

1학년 전 생도를 25명 내외로 구성된 중대별로 나누어 1학기에 8번, 2학기에 8번, 그리고 여

생도의 경우에는 추가로 각 학기당 1회씩 총 18번의 집단 면접을 실시하였다. 이 면접은 연구자와 심리학 전공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 교수에 의해 각 9회씩 비구조화된 형태로 진행되었다. 집단 면접은 생도들이 당면하는 적응상의 문제나 예로 사항에 초점을 두어 실시되었다.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크게 두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생도생활적용과 간이정신진단검사 결과는 시기(3월, 7월, 12월)를 피험자내 변인으로, 성(남생도/여생도)를 피험자간 변인으로 하여 시기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고, 성적의 경우는 1학기과 2학기 성적을 학업, 내무, 종합성적으로 나누어 성별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처리에는 PC용 SAS가 사용되었다. 집단 면접에서 나온 자료는 집단 면접을 주관한 면접자간에 합의하에 공통된 주제별로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수량적 지표면에서 본 생도생활 적응

생도생활 적응

생도들의 적응 상태를 생도생활적용검사, 간이정신진단검사와 성적과 같은 수량적 변인을 통해 측정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음 표1은 남녀 생도와 시기별 생도생활적용검사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남녀 생도 모두 생도생활적용검사의 하위 척도를 모두 합한 총적용점수에서 입교 직후나 두 학기가 경과된 시점보다 1학기를 종료한 시점에서 적응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생활적용의 하위 요인인 학업적인 적응에서 통계적으로도 의미있게 나타났다(표2).

이러한 V형의 생도생활 적응 패턴을 보이는 것은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신입생 신화'와 연결지어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가입교 직후에는 힘든 훈련을 무사히 통과했다는 자부심과 함께 신입생으로서 생도생활에 대한 기대나 포부가 매우 높을 수 있다. 그러나 한 학기 생활을 하는 동안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는 입교 직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적응 상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1학년 생도의 적응 상태가 생도생활 1년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승이

입교 직후에 보였던 기대와는 다른 차원에서 실제 생도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반영하는 것인지는 이들의 2, 3, 4학년 과정을 추적해 보아야 확증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으로 보아진다.

생도생활적용 면에서 남녀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여생도는 입교 직후나 1학기때까지 학업을 비롯한 전 영역에서 남생도 보다 적응 수준이 떨어진다. 이러한 차이는 여생도의 수가 남생도보다 절대적으로 작아 통계적인 유의미성으로 반영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저조한 여생도의 생활적용 점수가 1년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남생도 보다 다소 높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생도는 사관학교 환경에 적응하는데 남생도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적어도 그 시기가 미 공사의 여생도처럼 초기 2년(DeFleur et al. 1985)간이 아니라 초기 1년 정도면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해석 역시 여생도들의 학년 진급에 따른 변화 양상을 계속적으로 추적해 가야 확증할 수 있는 결과이지만 남녀 생도 통합 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이밖에 생활적용검사의 하위 요인에 따른 적응 상태를 보았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 하위

표4. 남녀생도별 학업 및 내무 성적 평균 및 표준편차

| 성적 | 학기/ 성별 | 1학기 | | 2학기 | |
|------|-----------|-------|------|-------|------|
| | | M | SD | M | SD |
| 학업성적 | 남생도 | 81.07 | 4.45 | 79.75 | 4.27 |
| | 여생도 | 82.81 | 4.53 | 82.49 | 3.02 |
| 내무성적 | 남생도 | 79.48 | 3.20 | 79.35 | 3.20 |
| | 여생도 | 78.90 | 4.42 | 77.95 | 3.66 |
| 종합성적 | 남생도 | 80.47 | 3.44 | 79.64 | 3.31 |
| | 여생도 | 81.17 | 3.79 | 81.10 | 2.74 |

요인들의 문항수가 일정하지 않아 하위 요인 간에 동일 비교가 어렵고, 각 하위 요인의 점수를 문항수로 나눈 결과 특별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 분석을 생략하기로 한다.

정신건강

간이정신단검사를 통해 생도들의 정신건강 수준을 측정한 결과(표3) 각 하위 요인별 증상을 합산하여 전체적인 정신건강 수준을 추론할 수 있는 전체 심도지수에서 입교 직후나 1학기를 끝마친 시점보다 1년을 마감해가는 12월의 지수가 의미있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생도들이 보인 이러한 점수는 본검사의 전체적인 기준(남 : 0.93, 여 인: 1.06)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어서 상대적으로 생도들의 정신건강은 매우 양호한 편으로 볼 수 있다.

남생도와 여생도의 반응을 비교해 보면 간이정신단검사의 9개의 하위 요인에서 여생도는 남생도에 비해 9개의 증상을 종합한 전체심도지수에서 뿐만 아니라 신체화, 강박증, 우울, 불안, 정신증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남생도보다 높은 증상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정신건강의 지

표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남녀 사관생도의 특성이라기 보다는 본 검사의 기준으로 사용된 남녀 대학생 집단이나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관찰될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여생도의 '신체화(somatization)' 요인의 점수는 주목할 만하다. 즉 상대적으로 남생도의 신체화 점수가 대학생 기준(.71)보다 낮은 반면 여생도의 신체화 점수는 대학생 기준(.84)이나 연세대학 여학생의 지수 .5(연세대학교 학생상담소 연구부, 1993), 그리고 이화여대생의 지수 .63(김 수연, 1995)보다 훨씬 높다. 이러한 반응은 생도 일과중의 하나인 구보를 비롯하여 체육이나 군사 훈련 등 체력을 바탕으로 하는 사관학교의 교과과정과 이러한 체력기준이 대다수의 남성에게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신체와 관련된 증상은 여생도들에게 생활적응상의 커다란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록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생도의 신체화 증상은 생도생활에 익숙해짐에 따라 점차 감소되고 있어(3월 .99, 7월 .95, 12월 .85) 여생도들의 신체적인 증상과 이로 인한 불안

은 생도생활에서 행해지는 규칙적인 훈련과 연습을 통해 점차 극복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성적

생도생활 적용의 과정적인 산물로 볼 수 있는 생도들의 학업, 내무, 종합 성적의 평균 및 표준편차가 표4에 제시되어 있다.

성적에서 나타난 남녀 생도의 반응을 보면 여생도는 남생도에 비해 1, 2학기 모두 학업성적은 남생도보다 높으나 내무성적은 남생도보다 낮다. 그러나 이 둘을 합친 종합성적에서는 학업성적의 우세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생도가 남생도보다 전학기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생도들의 성적을 좀더 의미있게 살펴보기 위해 각 성적에서 상위 25%안에 드는 우수 집단과 각 성적의 하위 25%이 하에 속하는 부진 집단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남생도는 1, 2학기 모두 학업이나 내무, 종합 성적면에서 전체집단과 일치되는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생도의 경우는 학업에서 상위 집단에 속하는 비율이 높고 2학기 성적에서는 이러한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학업 상위 집단:1학기 26%, 2학기 47%) 내무성적에서는 이와 역전이 되는 현상(내무 하위 집단:1학기 37%, 2학기 47%)을 보이고 있다.

여생도의 경우 남생도에 비해 학업성적이 능력이 생도생활에서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여생도들의 낮은 내무성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이다.

이러한 반응의 원인은 닭과 달걀의 논쟁처럼 개인적인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가 맞물려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남생도와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생도의 내무생활이 내무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생도의 소속 중대나 중대원으로 부터 분리된 내무생활은 소속 중대원들과 인간관계 기회의 부족이나 상급생과의 관계 소원 등을 야기 할 수 있고

생도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를 습득하는 점에서도 보고 배울만한 모델을 접할 기회를 상대적으로 적게 만든다. 이러한 기회와 모델의 부재는 내무생활에서 중시하는 생도로서의 규범이나 행동 습득이 어려울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여생도들의 생활은 동기생이나 상급생 혹은 훈육담당관들의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분리된 공간과 같은 구조적 측면뿐 아니라 아직도 사관학교에 만연되어 있는 여생도에 대한 '여성'과 '생도'의 상황에 따른 이중 기준이나 전시적인 소수 집단으로서의 인식과 같은 심리적인 측면은 생도들 뿐 아니라 이들을 지도, 교육하는 훈육관들에서도 여생도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같이 여생도들의 학업에 비해 내무성적이 낮게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남녀 생도 통합 교육이 시작된지 1년밖에 되지 않으므로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들의 생활과정을 지켜보면서 지속적으로 그 원인 및 대처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질적인 내용면에서 본 생도생활 적용

1, 2학기에 걸쳐 실시된 생도들과의 집단 면접 및 관찰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생도생활의 주요 과제 및 내용을 다음의 세가지 주제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다.

외부에서 내부로

생도생활 1학년 시기의 적용 양상의 큰 흐름 중의 하나는 외형적인 물리적인 측면의 적용에서 점차 내면적인 심리적 적용으로 변화해 가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입교 직후에 실시된 면접과 1학기 생활을 하고 난 2학기 면접의 내용에서 확연히 구분된다.

즉 가입과 직후 생도생활을 막 시작한 이들이 겪는 적용상의 어려움은 아침 기상, 내무반 정돈,

짜여진 일과에 맞춰 생활하기, 단체 식사나 음식에 익숙해 지기, 복장이나 전투화 같은 신발에의 적용, 제한된 외출 외박 수용, 비품 이용법 체득 등 특수한 시설에서의 외형적인 질서에 적응해 가는 내용들이 많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한 학기 생활을 하고 만난 이들은 좀 더 다른 시각에서 그들의 문제를 바라보았다. 즉 한 학기 과정을 통해 대부분의 생도는 물리적인 환경에 어느 정도 익숙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들의 관심은 선후배간의 인간관계, 소속 중대원간의 친목 및 유대, 동기생 애, 자기 계발, 생도로서의 정체감 등 좀더 내면적인 측면에서 생도생활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제기하였다.

생도들의 관심이 외적인 측면에서 내면으로 옮겨옴에 따라 대부분의 생도는 어렵פות하게 사관학교에서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복종' 중심의 1학년 내무생활의 특징상 이러한 생각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생도의 수는 적은 편이지만 때로 이러한 과정에서 '튀는 생도'들에 대한 선배들의 낙인은 생도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지적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일부 생도들은 자신의 생도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회의하기도 하고 심각한 경우 중도 포기를 결심도 하는 경우가 있다.

여생도들의 경우도 위에서 기술한 내용을 거의 경험하지만 이들은 특히 남생도와 분리된 내무생활이 심리적인 면에서 생도로서의 정체감이나 동질성을 갖게 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임을 지적하였다. 즉 선배 생도의 부재로 상대적으로 편하게 보내는 것처럼 비쳐지는 여생도들의 생활이 여생도들 스스로에게나 같은 동기의 남생도들에게도 생도로서의 동질감보다는 단절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외부에서 내부로의 심리적 적응이 시작되면서 생도들은 사관학교의 관습이나 전통, 규범을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 획일적

으로 주입하기 보다는 이러한 제 행동을 습득해야 하는 의미나 목적 등을 알기 원하며 그 전달 방식면에서도 집단 토론이나 논의를 통해 자연스럽게 자각될 수 있기를 원하는 편이다.

이상과 같은 외부에서 내면적인 적응으로의 시작은 1학년 후반부에 본격적인 출발이 이루어진다고 보여지며 생도생활에 대한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충분한 적응과 수용은 3, 4 학년의 생활을 경험함으로써 완성되는 것 같다.

개인에서 집단으로

집단 면접시 1학년 생도를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에서 입교후 생도생활을 통해 가장 많이 변한 것으로 남녀 생도 모두 '인내심', '복종심', '협동심'을 들고 있다(공군사관학교 상담실, 1997). 이러한 덕목은 생도집단의 위계구조에서 가장 하위에 놓여있는 1학년 생도의 위치와 개인의 욕구보다는 집단구성원간의 인화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생도생활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학년 생도들에게 처음부터 이러한 과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 생도들의 입교 동기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생도는 조종사나 진로 보장과 같은 전문 직업에 대한 훈련 욕구와 안정된 직업의 보장 같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사관학교를 지원하는 비율이 높다¹⁾. 따라서 1학년 생도들은 1학년 시기에 자신의 직업적 희망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군대 의식이나 군대 예절, 군대 가치 등 주로 공적이면서도 집단적인 동일성이 강조되는 훈련이나 교육에 대해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생도생활에서 개인의 잘잘못보다는 같은 동기나 소속 중대 같은 집단을 단위로 상벌이 주어지는 체제는 개인의 자유와 그에 따른 책임이 더 크다고 믿는 일부 생도들에게 생도생활에 회의를 갖게 하는 측

1) 1학년 생도의 입교 동기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공군사관학교 상담실, 1997) 전생도의 41%가 조종사, 35%가 진로 보장을 들고 있고, 군인에 응답한 비율은 6.2%였다.

면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생도는 가입교훈련과 한 학기 동안의 강도높은 재사회화 과정을 통해 위계적인 집단 특성을 지닌 사관학교 생활에 적응해 가지만 일부 생도는 여전히 자신의 욕구나 공간을 강조함으로써 같은 방을 쓰는 내무실원이나 동기생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위치에 놓이기도 한다. 다음의 지문은 이러한 생도에 대한 1학년 생도들의 불평에서 끈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다.

“같은 동기로서 제일 알미운 생도는 사역이 내려왔을 때 혼자 속 빠진대거나 께를 부리는 친구지요. 무용구보나 집단 기합 같은데에서도 걸으론 멀쩡한 것 같은데 번번히 열의를 하는 거예요. 그럴땐 같은 동기이지만 정말 미운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집단으로의 적용이 강조되는 생활은 ‘단결’이나 ‘용집력’같은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 무비판적으로 집단 압력에 동조하는 현상이나 개인의 다양성과 주체적인 참여 등을 무시하는 역기능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개인과 집단의 양 측은 비단 1학년 생활에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비교적 자율적인 생활이 가능한 고학년에서도 1학년과는 다른 형태나 소재로 끊임없이 생도생활 적용의 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여생도들의 경우도 이러한 집단으로의 적용 과정은 남생도와 다를바가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관학교에서 강조해온 집단적 가치는 성이 동일한 남성들은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생도이지만 성이 다른 여생도에게는 다른 측면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즉 때로 기존하는 선배나 동기생, 혹은 이들을 지도하는 장교들은 필요에 따라 여생도들을 ‘생도’라기 보다는 ‘여성’으로서 대우함으로써 동료 남생도와 구별되는 관심이나 배려를 쏟는다. 이러한 여생도들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여생도들을 생도집단의 한 일원으로써 통합시키기 보다는 남생도들과는 분리되는 소수 집단으로써 소외시키는 경험을 하게 한다. 집단 면접 과정에서 많은 여생도들은 관심과 비판 모두 여성이기 이전에 생도라는 큰 틀에서 남생도들과 동일하게 여생도들을 대해주기 원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제 남녀 생도의 통합이 막 시작된 시점에서 여생도 및 남생도가 새롭게 직면하는 이러한 과제들이 하루 아침에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남성만의 전당에서 남녀 모두를 위한 새로운 학교로 변신한 사관학교에서 이와 관련된 주제는 지속적으로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동화에서 조절로

동화(assimilation)와 조절(accomodation)은 환경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Piaget가 사용한 개념으로 동화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 틀에 환경을 적용시켜 적용해 나가는 방식이고, 조절이란 외부 환경이 개인의 틀로써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 틀을 변형시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가는 적용 양식을 말한다. 특별히 동화와 조절의 개념을 이용해 생도들의 적용과정을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것은 사관학교에 여생도가 입교함으로써 더 이상 사관학교는 고정관념적인 동화의 방식만으로는 생도들의 적용 과정을 이해하기 어렵고, 이들의 적용과정을 도울 수도 없기 때문이다.

집단 면접에서 많은 남생도들은 여생도 입교로 인해 학교의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고 있는 점 등은 긍정적인 변화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이들의 기본적인 태도에는 남성 최후의 상징이었던 사관학교의 전통이 여생도로 인해 단절된 점, 그리고 전반적인 체력 기준도 하향 평준화 되어 전투 정신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소수 여생도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오히려 남생도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등 주로 ‘동화’의 관점에서 여생도들의 존재에 대

해 불만을 토로하였다. 실제 남생도들의 이러한 태도는 1학년 생도를 대상으로한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태도 연구(김 광은, 1997)에서 입증된 것이다.

여생도들 역시 생도생활의 적용 모델을 다수 남생도예로의 동화에 초점을 두므로써 마치 '남성화' 되는 것이 최상의 적용 상태를 보장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일부 여생도들은 남녀가 함께 하는 생도생활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남생도보다 더 철저하게 기존의 전통이나 행동 규범을 고수하는 것이 참생도라는 인식을 하고 있고, 더러는 여생도들에게 주어지는 관심과 편의를 생도가 아닌 보호받아야 할 여성이라는 입장에서 당연시 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태도는 소수 집단으로서 여생도들을 뭉치게 하기 보다는 다수 남생도 집단으로 분열해 버리거나 생도이기를 포기하는 현상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나 1년여의 생도생활을 하면서 여생도들과 남생도들은 '조절'의 관점에서 새로운 자각을 경험하는 것 같았다. 즉 여생도들은 생도이면서 동시에 소수 여성 집단으로서 남녀 생도 공히 지향해야 할 새로운 생도상의 정립의 필요성을 느끼기도 하고 여전히 남성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사관학교의 많은 관행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남생도들의 경우에서도 여생도들의 학업부문에서의 두드러진 성취와 남생도들에게도 힘든 체육이나 군사훈련을 여생도들이 기꺼이, 그리고 열심히 참여하려는 자세를 보면서 기존의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여성이 아닌 같은 목표를 향해가는 '동료'로써 여생도들을 재인식하는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사실 생도들의 생활적용에서 '조절'의 관점이 더 필요한 것은 생도들보다 생도들을 이끌어 가는 교육 장교나 훈육담당관인지도 모른다. 성이 다른 두 집단이 모여 최대한의 시너지를 내고자

하는 것이 남녀 생도 통합의 목적이라는데 동의한다면, 남녀 생도 모두 충분히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군대 조직의 새로운 리더십이나 역할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생도들을 이끌어가는 지도부 스스로 이전에 갖고 있는 틀을 과감히 깨고 좀더 능동적으로 새로운 사관학교 환경에 적용해 가려는 조절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논 의

본 연구는 입교후 1년간의 기간이 생도생활 적용에 결정적 시기라는 가정하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도들의 적용해 가는 모습을 탐색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몇가지 논의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1학년 생도생활에서 첫 번째 학기를 마무리 하는 시점은 생도들의 외형적인 모습을 만들어 가고 내면적으로도 생도로서의 정체감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게 되는 중요한 시기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시기는 생도생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현실에서 부딪히면서 일시적으로 생활적용상의 어려움을 보이기도 하지만 좀더 현실적인 맥락에서 생도생활을 수용하는 단계로 보여진다. 문제는 이러한 시점에서 어떠한 교육 방법이나 지도가 생도들의 생활적용을 돕는 데 효과적인가이다.

생도생활 초기의 적용 과제는 사관학교에 존재하는 각종 규율이나 규범, 행동 규칙을 익히는 것이고 이러한 내용은 명령체계에 의한 지시나 전달을 통해 습득된다. 이러한 방법은 단기적으로 외형적인 면에서 생도의 틀을 만들어 가는데에는 효과적이거나 이러한 행동이 가정하고 있는 의미를 내면화하는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적어도 1학년 2학기 부터는 일상적인 영역에서부터 이러한 행동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개념적인 교육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면에서도 일방적이

고 지시적인 수직적인 전달보다는 1학년 생도간의 소모임이나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선배들과의 토론을 통해 1학년 시기의 습득해야 할 적응과제를 자연스럽게 자각하고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여생도들은 생도생활 적응의 여러 지표에서 남생도들보다 적응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여생도들의 이러한 반응을 어떻게 이해하며, 여생도들의 생활적응을 촉진시키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이다.

남녀 생도 통합이 막 시작된 시점에서 여생도들의 이러한 반응은 예상된 것이며 현재의 물리적, 심리적 구조에서는 당연한 반응인지도 모른다. 전통적인 성역할을 넘어서는 역할혁신자들은 고정관념적인 성역할을 벗어난다는 것만으로도 일상적인 집단에 비해 심리적인 부담이 크다. 또한 초기 생도생활은 체력이 모든 생활적응의 기초가 될만큼 중요한 변인이다. 이러한 점에서 상대적으로 남생도보다 체력적으로 열세한 여생도들은 근본적인 불안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생도들은 생도생활을 해가면서 신체와 관련된 두려움 극복 및 전반적인 영역에서 적응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환경의 영향을 덜 받는 학업 영역에서는 줄곧 남생도보다 더 뛰어난 성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초점은 여생도 자신 뿐 아니라 여생도 입교가 상징하는 사관학교의 기본 틀의 변화에 좀더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즉 과거 남성만의 사관학교에서 강조했던 기본 이념이나 행동 덕목은 여성성의 맥락에서도 재검토될 필요가 있고, 사관학교의 물리적, 심리적인 환경도 양성의 바람직한 특징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새롭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관점의 변화는 생도들과 관련된 주변환경을 만드는데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줄 수 있고, 특히 여생도들의 생활적응과 관련된 여러 시설 및 정책 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검사의 효용성과 관련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생도생활적응 검사는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미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거친 것이지만 특히 이 검사를 사용한 생도생활 적응 점수와 학업 및 내무 성적간에 의미있는 관련이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검사가 학업 및 내무 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있는 생도들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는 진단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후속연구를 통해 생도생활적응검사의 사회나 개인-정서, 애착 등 다른 하위 요인들과 생도생활과의 관계가 밝혀지게 되면 이 검사의 효용성은 점차 커지리라 생각한다.

끝으로 후속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을 언급해 보기로 한다. 본 연구는 1학년 생도의 입교 후 1년간의 생활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이 과연 1학년 생도생활 적응과정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것이지, 아니면 4년간의 생도생활에서 반복되는 것인지에 대해 알 수 없고, 4년의 생도생활을 한 주기로 보았을 때 1학년 시기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다른 학년에 비해 적응의 어려움이 더 있는 것인지 등 생도생활 적응과 관련된 전체 상을 그리기에는 아직 미흡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생도생활 적응을 제한된 변인의 범위내에서만 살펴보았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개념적인 측면에서나 실제적인 면에서 생도생활 적응과 관련된 변인을 좀더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이와 관련된 검증이나 이론 모델을 만드는 작업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공군사관학교 교수부 학습지도실(1997). 49기 예비 생도 기초학력평가 결과분석. 미간행 자료
- 공군사관학교 상담실(1997). 신입생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 미간행 자료
- 김광은(1997). 성통합 초기 단계에서 생도들의 성 역할 정체감 및 여성의 역할에 대한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2권 제1호, 102-114.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중앙적성출판부
- 김수연(1995). 1995학년도 신입생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 SCL 90R을 사용하여. 학생생활 연구, 제 31권.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36-50
- 김은정, 이정윤, 윤소연, 오경자, 조신권. 대학생들의 학업적, 심리적 적응: 1년간 추적연구. 연세상담연구, 제9권, 87-145.
- 문형춘, 김정옥(1996). 신입생의 인간관계와 정신 건강. 학생연구, 제31권 제1호,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55-71.
- 안창일, 권정혜, 이주성(1996). 의대생들의 대학생 활적응에 관한 연구. 심리검사 및 상담연구, 제2권, 115-128. 고려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연세대학교 학생상담소 연구부(1993). 1993학년도 신입생의 적응양상에 관한 연구. 연세상담연구, 제9권. 연세대학교 학생상담소, 39-65
- 이재강(1995), 한국 사관학교 생도문화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Baker, R. W. & Siryk, B.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31, 181-189.
- Baker, R. W. & Siryk, B. (1984). Exploatory intervention with a scale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33(1). 31-38.
- Baker, R. W., McNeil, O.V., & Siryk, B (1985). Expectation and reality in freshman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1), 93-103.
- DeFleur, L. B., Wood, F., Harris, D., Gillman, M. W. (1985). Integration at the United States Air Force Academy: Problems and Issues. USAFA.
- Lazarus, R. S. (1976). *Pattern of adjustment*(3rd). McGrawhil Kogakusha.
- Stiehm, J. H. (1981). *Bring me men and women*. Univ. of California Press.
- Wamsley, G. L. (1972). Contrasting institution of Air Force Socializ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2), 399-417.

韓國心理學會誌: 女性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Women

1998, Vol. 3, No. 1, 148-160

A Study on Adaptation Process of Female Cadets and Male Cadets: One Year Follow-Up Study after their Entrance

Kim, Kwang-Un

Korea Air Force Academy

This study has investigated the one year adaptation process of female cadets and male cadets after their entrance. The subjects of the study are 182 male cadets and 19 female cadets at the Korea Air Force Academy. The measure of the adaptation process is completed by quantitative methods using Cadets Adjustment to Academy, Korean Symptom Checklist and their GPA. The theme of the adaptation process is analysed by small group interview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daptation pattern of the first grade is 'V' which means that the level of the adaptation is the lowest at the end of the first semester. Second, female cadets have more problems than male cadets in adaptation and mental health. Third, female cadets are higher than male cadets in academic achievement scores but in military conduct scores, the result is reversed. Fourth, the trends of the adaptation process are from external to internal, from individual to group and from assimilation to accomodation. All these results are discussed in the context of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environment of the academy.